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투표해서 뿌듯”

소중한 한표 행사한 광주 오지마을 어르신들 동행 취재

“몸 불편해 포기할까 했는데...셔틀버스 덕분에 편하게 투표”

89세 할아버지 “1948년 첫 선거부터 투표 빠트린 적 없어”

시선관위 전세버스·장애인용 콜택시 운행 거동 불편자 도와

“내가 말어, 우리나라 첫 선거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한 사람이여. 이번엔 건강이 안 좋아 투표를 포기할까 했는데 다행히 선관위에서 제공한 버스 덕분에 편하게 투표하게 됐어. 근데 젊은 양반은 투표했는가? 투표 안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녀.”

13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장동 장등마을회관 앞.

이 마을에 거주하는 이호연(89) 할아버지가 오전 8시 출발 예정인 광주동초등학교 행 버스를 타기 위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마을회관 입구로 힘겹게 들어섰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948년 5월 10일 화순광업소 투표소에서 우리나라 최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선거에 참여해 투표했다”며 “이번 선거는 투표소까지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선관위에서 투표를 할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장등마을에서 투표소인 광주동초등학교는 3km거리인데, 성인걸음으로도 30분 이상 걸어야 한다.

같은 날 오전 8시 18분께 분토마을에서 주민 3명과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소 셔틀버스’를 탄 이귀순(74) 할머니는 “선거 덕분에 오랜만에 관광 버스(셔틀버스)를 타니 기분이 좋다. 무더운 날 시원하게 투표소를 갈 수 있어 참 편하다”며 활짝 웃었다. 귀순 할머니의 흥겨운 말을 들은 버스 안전 요원이 “그렇다고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자 버스 안은 웃음 바다가 됐다.

이날 8명의 어르신들이 탑승한 투표소 셔틀버스 안에서는 지난 12일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야기의 장이 펼쳐졌으며, 한 어르신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표소 셔틀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구 장등마을에서 출발해 분토마을과 화암마을 등을 거쳐 석곡 제1투표소(광주동초등학교)까지 도착하는 6km구간(평균 소요시간 45분)을 5차례 왕복 운행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교통오지 마을 주민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2항에서는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시내버스가 1일 6회 미만 다니는 마을이나 동주민센터 수요 조사를 통해 교통이 불편하다고 파악된 마을에는 35인승 버스를 지원했다. 동구를 제외한 서구 2대, 남구 3대, 북구 3대, 광산구 14대(27개 노선) 등 전세버스 22대를 투입, 이날 하루 4~5회씩 교통불편마을과 투표소를 왕복 운행하며 주민의 투표를 도왔다.

셔틀버스에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이나 동 선거위원회에서 나온 안전요원이 동승해 탑승객에게 투표 절차 안내와 함께 특정후보·정당 지지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으며, 버스 운행시간·노선이 제대로

지켜지는 등도 관리·감독했다.

시선관위는 또 이날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협의해 투표도움차량(장애인용콜택시) 20대를 광주 시내 곳곳에 배치해 장애인 등의 투표도 지원했다.

정영수 장등마을 통장은 “그동안 마을 어르신들이 투표소인 광주동초등학교까지 가기 위해 30분 넘게 걸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다행히 마을입구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돼 안심하고 투표장에 갈 수 있었다. 그만큼 투표율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 북쪽 자락에 자리잡은 도심속 농촌마을인 석곡동(48.33km)은 16개 자연마을에 2736명(1364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91.9%인 2514명이 유권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투표소 가는 길 즐거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북구 석곡동 주민들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석곡동 제1투표소(광주동초등학교)에 도착한 뒤 하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곳곳 투표용지·현수막 훼손 잇따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나 선거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가 잇따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시께 목포시 하당동 제2투표소에서 한 중년 남성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다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투표용지 7장 중 4장을 찢었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

의 신원을 파악해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강진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무효표 처리됐다.

같은날 오전 목포시 용해동 제4투표소 인근에서는 목포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주민들에게 지지를 유도

하는 행동을 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영암에서는 모 후보의 가족 A(66)씨 등 2명이 전날 오후 5시께 영암읍 일대에 설치된 모 후보의 선거 현수막 8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해당 현수막에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어 후보 측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후보 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현수막 게시

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7	달뜨기	05:38
해질	19:48	달짐	20:12

강한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8/29	보성	맑음	16/25
목포	맑음	19/28	순천	맑음	16/27
여수	맑음	18/24	영광	맑음	17/29
나주	맑음	16/29	진도	맑음	17/25
완도	맑음	18/26	전주	맑음	18/30
구례	맑음	15/28	군산	맑음	18/29
강진	맑음	18/26	남원	맑음	16/28
해남	맑음	17/26	흑산도	맑음	16/23
장성	맑음	15/28			



◇바다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동~남동	1.0~1.5	동~남동	1.0~2.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7:43	02:25
	19:47	14:27
여수	03:09	09:15
	15:16	21:53

◇주간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17/30	18/30	19/29	19/30	18/30	19/30	19/30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올해 첫 발생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처음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해산물 섭취와 조리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B형간염을 동반한 간경화를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패혈증은 회복된 상태다. 지난 3월 여수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된 후 전남, 경남, 인천, 울산의 해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학교서 간식 먹다 기도 막혀

치료 받던 초등생 결국 숨져

방과 후 수업 시간에 간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치료를 받던 초등생이 숨졌다. 13일 충남 공주경찰에 따르면 공주지역 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숨졌다.

A양은 전날 오후 3시 39분께 학교 교실에서 방과 후 수업 간식으로 나온 어묵을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방과 후 담당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흥 70대 농진청 개발 포획트랩으로 멧돼지 6마리 잡아 ‘화제’



○··고흥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포획트랩이 개발한 포획트랩

으로 멧돼지 6마리를 잡아 화제. ○··1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고흥에서 배고구마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김춘지(73)씨는 해마다 멧돼지가 밭을 파헤치는 바람에 6년 전부터는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해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멧돼지 포획트랩’을 설치해 최근 무게 50~70kg짜리 멧돼지를 6마리나 잡았다는 것.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멧돼지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습성이 있어 포획틀에 3일 이상 먹이를 놓아두면 집단 포획도 가능하다. 포획틀을 잘 활용하면 멧돼지를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